

# 오월의 상흔, 그너머 오늘의 민주주의를 묻다

놀이패 신명 '언젠가 봄날에' 순회공연

굿·민중연희 결합 오월 레퍼토리 선배  
살아남은 이들과 떠나지 못한 이들 통해  
용기·상처...치유·희망의 메시지 전달

세월이 흘러도 끝나지 않은 오월의 아픔과 기억이 다시 무대에 오른다.

지역 대표 마당극 전문예술단체인 놀이패 신명이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를 광주 광산구와 북구에서 순회 공연으로 선보인다.

'언젠가 봄날에'는 2010년 초연 이후 전국 각지에서 300회 이상 공연된 놀이패 신명의 대표 오월 레퍼토리 작품이다.

1980년 5월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광주 시민들의 용기와 상처, 그리고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비극적 서사를 앞세우기보다, 살아남은 이들



놀이패 신명이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광산구와 북구에서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 순회공연을 선보인다. 사진은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 공연.

과 떠나지 못한 이들 사이의 감정선을 따라가며 관객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의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특히 굿의 형식과 민중연희적 감각이 결합된 연출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며, 공연을 '보는 일'에서 함께 '참여하는 일'로 확장한다.

이번 공연은 최근 우리 사회가 다시 마주한 민주주의의 의미와 공동체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며 깊은 울림과 공감을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작품은 늙은 무당 박조금이 1980년 오월에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4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억울한 죽임으로 저승에 가지 못한 시민군 호석과 여고생 정옥, 백구두, 이들을 저승으로 데려가려는 저승사자와 까막까치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5월을 다시 마주하게 한다.

전통 마당극 형식 위에 음악과 움직임, 공동체적 서사를 더해 오월의 기억을 현재의 감각으로 풀어냈다.

놀이패 신명은 창단 이후 사회적 약자와 소외

된 이웃들의 삶을 마당극으로 풀어내며 지역을 대표하는 민중예술단체로 활동해오고 있다.

제작에는 연출 남기성, 드라마터그 김소연, 안무 송윤경, 음악 김현무, 의상 박현주, 무대 황지선 등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했다.

출연진으로는 지정남, 정찬일, 문창주, 김호준, 최혜민, 강근희, 백민, 김혜선, 김선민, 유예린 등이 함께하며, 악사로는 김종일, 김단비, 김하린, 최민석 등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오는 22-23일 광산문화예술회관, 29-30일 북구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 평일 공연은 오후 7시30분, 주말 공연은 오후 2시에 열린다.

관람료는 5천원(예매수수료 별도)이며 예매는 예스24 티켓에서 가능하다. 공연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디어마이광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연은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가 주최하고 놀이패 신명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최명진기자



## “기초예술 지원·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반영”

ACC 방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지역 예술인 간담회서 현안 소통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8일 광주를 찾아 지역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초예술 지원과 ACC의 지역 상생 역할 확대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향후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회장과 류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 회장, 이정기 작가, 임홍석

한국연극협회 광주지회장, 김현재 안무가 등이 참석했다.

지역 예술인들은 ACC 운영 방향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와 필요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이정기 작가는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용적인 작업을 이어가는 지역 작가들

에게 든든한 기반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홍석 회장은 “지역 공연예술인들이 ACC와 함께 공동 제작과 유통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재 안무가는 “시장성이 높은 장르 중심이 아니라 무용·국악·실험공연 같은 기초예술 분야에도 전략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ACC 예술극장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 지역 예술인과의 연계 확대, 공공기관의 작품 소장 시스템 마련, 문화예술장기 지원 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박 장관은 “기초예술 분야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화예술 지원과 함께 문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 마련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과 정책 방향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 행정통합시대, 청년예술을 말하다

갤러리 현, 신진작가전 내달 20일까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과 광복 81주년을 기념하는 신진작가전이 마련됐다.

'부분과 전체 (Σp=w) \_ The Era We Creat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청년세대가 마주한 시대의 감각과 공동체의 의미를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낸다.

전시는 오는 6월 20일까지 광주예술거리에서 위치한 갤러리 현에서 열린다.

전시 주제는 개인과 공동체, 지역과 시대, 청년예술가의 현실과 미래를 함께 바라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올해 전시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라는 시대적 변화를 배경으로 청년예술가의 역할과 지역 예술생태계의 방향성도 함께 조명한다.

전시에는 김민규·박나현·박소율·임정현·최가를 작가가 참여한다. 오는 22일 오후 3시에는 전시 오픈식과 함께 작가토크 및 정책 토론회도 열린다. 토론회는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행정통합시대, 청년예술가에게 필요한 것과 요구되는 것'을 주제로 마련된다.

행정통합 이후 예상되는 문화예산 구조 변화와 지역 문화격차 문제,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 자생 가능한 지역 예술생태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전시 기획을 맡은 이현남 갤러리 현 대표(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는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고, 청년예술가들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실제 지역 문화정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